

---

 논문
 

---

## 모리스 바르데슈의 신파시즘과 파시스트 유럽주의\*

김 용 우

- |                       |                  |
|-----------------------|------------------|
| I. 전후 파시즘의 재건         | III. 파시스트 유럽의 신화 |
| II. 신파시스트 인터내셔널: 말퇴대회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전후 신파시즘의 가장 두드러진 두 특징은 파시즘의 유럽화와 메타-정치화였다. 모리스 바르데슈의 정치적, 지적 역정은 전후 파시즘이 택한 두 고전적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신파시즘 연구사에서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바르데슈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신파시스트 이데올로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바르데슈는 최초의 파시스트 유럽주의 이론가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1951년 출간된 바르데슈의 저서를 분석해 어떻게 그가 파시스트 유럽주의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사실상 그의 1951년 저서, 『콜럼버스의 달걀』은 프랑스에서 전후 파시스트 유럽주의의 골격을 제시한 최초의 중요한 시도였다.

---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39729)

## I. 전후 파시즘의 재건

무솔리니 체제, 히틀러 정권의 와해가 곧 파시즘의 종말은 아니었다. 유럽 파시즘을 이끌던 쌍두마차의 전복이 파시즘의 사망선고라 믿을 수 없었던 많은 파시스트들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만신창이가 된 파시즘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들 앞에는 대체로 두 길이 열려 있었다. 먼저 파시즘의 역사를 전유하는 일, 혹은 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수정주의’ 역사를 쓰는 일이다. ‘수정주의’의 이름으로 이들은 전간기 파시즘이 저지른 죄악을 상대화하거나 부인하면서 파시즘의 복권을 시도했다. 동시에 이들은 유럽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파시즘이야말로 폐허로 변한 유럽을 재생활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신파시스트 이론가들은 단연코 유럽적이다. 이들은 이전 조국을 위해 꾸었던 위대함과 위엄의 꿈을 유럽으로 옮겼다.”<sup>1)</sup> 전후 파시즘의 현저한 특징은 파시즘의 “유럽화”를 지향하면서 파시스트 이데올로기를 재정립하려는 이념 투쟁에 있었다. “유럽화”와 “메타정치화(metapoliticisation)”는 전후 파시즘이 택한 양대 핵심 전략이었다.<sup>2)</sup>

1) Maurice Bardèche, *Qu'est-ce que le fascisme?*(Paris: Les Sept Couleurs, 1961), p. 113.

2) Roger Griffin, “Fascism’s New Faces (and New Facelessness) in the ‘Post-Fascist’ Epoch”, Matthew Feldman (ed.), *The Fascist Century: Essays by Roger Griffi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8), p. 195. “메타-정치(métapolitique)”란 프랑스의 신파시스트 이념 운동인 “뉴라이트(Nouvelle Droite)”의 대표적인 이론가 알랭 드 브누아(Alain de Benoist)가 유행시킨 개념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전에 이념을 가다듬고 또 이념의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획득하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메타-정치” 전략은 흔히 “우파 그람시주의”로 대체되어 사용된다. 이 글에서 “메타-정치”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전후 신파시즘의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과, 이러한 전략이 1970년대, 즉 프랑스 “뉴라이트”에 의해 처음 활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메타-정치”에 대한 드 브누아의 최근 입장에 대해서는 Alain de Benoist, *Mémoire vive: entretiens avec François Bousquet*(Paris: Fallois, 2012), pp. 111-112. 또한 김용

프랑스의 파시스트 지식인 모리스 바르데슈(Maurice Bardèche, 1907-1998)의 정치적, 지적 역정은 전후 파시즘이 선택했던 두 노선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바르데슈는 종전 직후부터 일련의 저작을 통해 비시(Vichy) 정권의 대독협력을 옹호하고 뉘른베르크(Nürnberg) 전범 재판의 정당성을 공격하면서 나치의 유대인 절멸정책을 부인했다. 더 나아가 바르데슈는 일국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새롭게 파시즘으로 무장할 때만 소련과 미국의 위협에서 벗어나 독립된 문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르데슈에게 유로파시즘(Eurofascism)이야말로 소련식 공산주의와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이른바 제3의 길이었다. 바르데슈는 영국의 오스월드 모슬리(Oswald Mosley, 1896-1980), 이탈리아의 율리우스 에볼라(Julius Evola, 1898-1974)와 함께 전후 유로파시즘의 주도적인 이론가로서 이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극우파와 신파시스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sup>3)</sup> 1961년 바르데슈는 『파시즘이란 무엇인가』를 출간했다.<sup>4)</sup> “나는 파시스트 작가”라는 대담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이 책은 이후 젊은 세대 극우파들 사이에서 히틀러의 『나의 투쟁』과 같은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sup>5)</sup>

바르데슈는 젊은 시절 로베르 브라지야크(Robert Brasillach, 1909-1945)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1926년 루이대왕고등학교에서 교분을 맺은 두 사람은 파리고등사범에 진학해 함께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sup>6)</sup> 1934년 바르데슈가 브라지야크의 여동

---

우, 「프랑스의 뉴 라이트(Nouvelle Droite), 포스트-식민주의 파시즘?」, 『서양사론』, 제129호(2016), 13-41쪽.

3) Andrea Mammone, *Transnational Neofascism in France and Italy*(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 62-84. 모슬리에 대해서는 Graham Macklin, *Very Deeply Dyed in Black: Sir Oswald Mosley and the Resurrection of British Fascism after 1945*(London: I. B. Tauris, 2007).

4) Bardèche, *Qu'est-ce que le fascisme?*

5) Joseph Algazy, *L'extrême-droite en France 1965 à 1984*(Paris: L'Harmattan, 1989), p. 167; J. G. Shields, *The Extreme Right in France*(London: Routledge, 2007), p. 99.

6) 바르데슈의 생애에 대해서는 Francis Bergeron, *Bardèche*(Grez-sur-Loing: Pardès,

생 쉬잔느(Suzanne)과 결혼하면서 둘은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으며 두 책을 함께 출간할 정도로 상호간의 이념적 친밀감을 형성했다.<sup>7)</sup> 그러나 1940년 소르본느, 1942년 릴(Lille)대학에서 19세기 문학을 강의했던 경력에서 드러나듯 이 시기 바르데슈의 주된 관심은 발자크(Balzac), 스탕달(Stendhal), 플로베르(Flaubert)를 위시한 19세기 문학 연구였다.<sup>8)</sup> 반면 브라지야크는 이 무렵 이미 프랑스의 대표적인 파시스트 문인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1945년 2월 6일 브라지야크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건은 바르데슈의 경력에서 전환점 역할을 했다.<sup>9)</sup> 바르데슈는 1980-1981년 한 이스라엘 역사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나는 브라지야크를 많이 좋아했고 또 찬양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숙청(épuration)이야말로 나를 정치적 동물로 만든 장본인임을 당신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전까지 정치는 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sup>10)</sup> 그러나 브라지야크의 죽음이 바로 바르데슈를 파시스트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이미 루이대왕고등학교 시절부터 바르데슈는 브라지야크의 권유로 샤를르 모라스(Charles Maurras, 1868-1952)의 악시옹 프랑세즈(Action française)의 이념을 접했고 반

2012); Maurice Bardèche, *Souvenirs*(Paris: Bouchet/Chastel, 1993).

7) Maurice Bardèche and Robert Brasillach, *Historie du cinéma*(Paris: Denoël, 1935); Robert Brasillach, Maurice Bardèche, *Historie de la guerre d'Espagne* (Paris: Plon, 1939).

8) Maurice Bardèche, *Balzac romancier*(Paris: Plon, 1940); *Stendhal romancier* (Paris: La Table Ronde, 1947). 이후에도 바르데슈는 신파시스트 지식인으로서의 활동과 프랑스 문학 연구를 병행해 나갔다. 에킨대 Maurice Bardèche, *Marcel Proust, romancier*(Paris: Les Sept Couleurs, 1971); *L'Œuvre de Flaubert* (Paris: Les Sept Couleurs, 1974); *Louis-Ferdinand Céline*(Paris: La Table Ronde, 1986); *Léon Bloy*(Paris: La Table Ronde, 1989).

9) 바르데슈의 죄목은 “intelligence avec l'ennemi”였다. 브라지야크의 재판과 처형에 대해서는 Alice Kaplan, *The Collaborator. The Trial & Execution of Robert Brasillach*(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0) Interviews de Joseph Algazy avec Maurice Bardèche, Paris, 7 décembre 1980 et 31 janvier 1981, Joseph Algazy, *La tentation néo-fasciste en France 1944-1965*(Paris: Fayard, 1984), p. 203.

유대주의에 공감했다. 또한 바르데슈는 브라지야크 외에도 예컨대 피에르 드리외 라 로셸(Pierre Drieu la Rochell, 1893-1945), 루시앙 르바테(Rucien Rebatet, 1903-0972) 같은 저명한 파시스트들과 교류했다.<sup>11)</sup>

바르데슈는 1947년 『프랑수아 모리악에게 보내는 편지』를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 들었다.<sup>12)</sup> 이 책에서 바르데슈는 숙청과 레지스탕스를 주요 타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비시정권의 대독협력과 협력자들을 옹호했다. 그의 논지는 단순하다. 비시정권은 합법적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국가이므로 국가의 대독협력 정책에 복종했던 대독협력자들은 반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애국자라는 주장이다. 또한 바르데슈는 나치의 점령이 프랑스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시정권의 반유대주의적 법안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저자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반유대주의적이지 않나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8만부가 인쇄되었다.<sup>13)</sup> 바르데슈의 정치 무대 데뷔작이 곧바로 대중의 주목을 끄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듬해인 1948년 출간한 『뉘른베르크 또는 약속의 땅』에서 바르데슈는 전작 『프랑수아 모리악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sup>14)</sup> 미국의 문학비평가와의 인터뷰에서 바르데슈는 이렇게 술회한다. 전작에서 “나는 프랑스에서 숙청을 촉발한 정신 상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레지스탕스를 비난했습니다. 독일인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독일 장군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1) *Ibid.*, p. 206.

12) Maurice Bardèche, *Lettre à François Mauriac*(Paris: La Pensée libre, 1947). 바르데슈가 모리악에게 보내는 편지 양식을 택하게 된 것은 모리악이 브라지야크의 사면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이었다. Bardèche, *Souvenirs*, p. 212.

13) 1982년 7월 13일 앨리스 캐플런(Alice Kaplan)과의 대담에서 바르데슈는 이렇게 말했다. “『프랑수아 모리악에게 보내는 편지』는 반유대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책은 거짓과 레지스탕스에 맞선 것입니다.” Alice Kaplan, *Reproductions of Banality: Fascism, Literature, and French Intellectual Life*(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177.

14) Maurice Bardèche, *Nuremberg ou la terre promise*(Paris: Les Sept Couleurs, 1948).

당시 독일 정부는 히틀러의 정부였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고 충성을 다해 싸워야했습니다...그런데 장군이라면, 책임감 있는 정치가라면 누구나 했을 일을 했다는 이유로 교수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sup>15)</sup>

또한 『뉘른베르크 또는 약속의 땅』과 함께 바르데슈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는 ‘부정주의(négationnisme)’의 선구자로 나섰다. 프랑스의 역사가 발레리 이구네(Valérie Igounet)는 바르데슈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sup>16)</sup> 첫째,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다, 둘째, 연합국, 특히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를 발명했다, 셋째, 주로 공산주의자들과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증언들은 신빙성이 없다, 넷째, 공산주의 체제의 공포가 잊히면 안 된다, 다섯째, 수용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는 수감자들이 저지른 것이다, 여섯째, 독일의 첫 번째 패배 이후 수용소 생활 조건이 훨씬 악화되었다, 일곱째, 한 순간도 나치체제는 유대인 절멸을 원하지 않았다, 여덟째, 아우슈비츠에서 가스를 사용했다면 그 이유는 이를 박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 책으로 바르데슈는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수개국어로 번역되어 이번에는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sup>17)</sup>

1951년 스웨덴의 말뫼(Malmö)에서 열린 전후 최초의 대규모 파시스트들의 국제 행사에 바르데슈가 프랑스 대표로 참석하게 된 것도 이러한 명성 때문이었다. 파시즘의 “유럽화”가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공유했던 각국의 파시스트들은 말뫼대회(congrès de Malmö)에 참석해 ‘유럽사회운동(Mouvement Social Européen)’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15) Kaplan, *Reproductions of Banality*, p. 177.

16) Valérie Igounet, *Histoire du négationnisme en France*(Paris: Seuil, 2000), pp. 44-45. 또한 Ghislaine Desbuissons, “Maurice Bardèche: un précurseur du «révisionnisme»”, *Relations internationales*, no. 65(1991), pp. 23-37; Stephen E. Atkins, *Holocaust Denial as an International Movement*(London: Praeger, 2009), p. 89.

17) Kaplan, *Reproductions of Banality*, p. 178. 여기서 바르데슈는 『뉘른베르크 또는 약속의 땅』이 7개 혹은 8개국어로 번역되었다고 주장한다.

정치조직을 탄생시켰지만 그 생명력은 약했다. 결성 직후부터 분열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2년 바르데슈가 유럽사회운동의 프랑스 지부 기관지로 창간한 『서양의 수호(Défense de l'Occident)』는 전후 파시즘의 이념적 실험실 역할을 했다. 사실상 말피대회의 중요성은 유럽의 신파시즘이 정치투쟁보다는 이념투쟁에 힘을 쏟게 되는, “메타정치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있다.

유럽 신파시즘의 “메타정치화”는 역사가들에게 사상사적, 문화사적 접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바르데슈는 말피대회 직후인 1951년 11월에 출간한 『콜럼버스의 달걀: 미국상원의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미 파시스트 유럽공동체의 밑그림과 함께 자신의 신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열개를 제시했다.<sup>18)</sup> 그림에도 지금까지 바르데슈 연구는 주로 『뉘른베르크 또는 약속의 땅』과 『파시즘이란 무엇인가』에 집중하거나 말피대회를 중심으로 그의 짧았던, 실패한 정치활동을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sup>19)</sup> 일부 연구에서 바르데슈의 유로파시즘을 주제로 삼고 있지만 여기서도 『콜럼버스의 달걀』은 외면당한다.<sup>20)</sup>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콜럼버스의 달걀』이 출간 당시 전작들에 비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보인 파시스트 유럽주의의 핵심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 II. 신파시스트 인터내셔널: 말피대회

1951년 5월 스웨덴에서 열린 말피대회는 유럽공동체의 이름으로 부

18) Maurice Bardèche, *L'auf de Christophe Colomb: Lettre à un sénateur d'Amérique* (Paris: Les Sept Couleurs, 1951).

19) Ghislaine Desbuissons, “Maurice Bardèche, écrivain et théoricien fasciste?”,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Vol. 37(1990), pp. 148-159.

20) Ian R. Barnes, “Antisemitic Europe and the ‘Third Way’: The Ideas of Maurice Bardèche”, *Patterns of Prejudice*, Vol. 34, No. 2(2000), pp. 57-73.

활을 피하던 전후 파시스트들의 국제적 회합이었다. 독일 점령을 피했기에 파시즘에 비교적 거부감이 덜했던 스웨덴의 도시 말뫼에서 3일 동안 열린 이 대회에는 프랑스를 대표했던 바르데슈를 비롯해 이탈리아, 서독,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서 약 60명에서 100명 사이의 신파시스트들이 참가했다.<sup>21)</sup> 말뫼대회를 실무적 차원에서 조직한 인물은 ‘신(新)스웨덴운동(Nysvenska Rorelsen)’의 지도자 페르 엔달(Per Engdahl, 1909-1994)이었다. 그러나 말뫼대회 개최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이탈리아사회운동(Movimento Sociale Italiano)’이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신파시스트 정치세력이었던 이탈리아사회운동은 1950년 5월 로마에서 사전 준비 모임을 개최했고 여기에는 바르데슈와 엔달을 비롯해 영국의 모슬리, 무솔리니의 딸 안나 마리아 무솔리니(Anna Maria Mussoloni, 1929-1968), 히틀러청년단(Hitlerjugend) 간부 출신으로 신나치 조직 ‘독일사회운동(Deutsche Soziale Bewegung)’을 이끌던 칼 프리스터(Karl Heinz Priester, 1913-1960)가 참석했다. 같은 해 9월, 이번에는 신세대 신파시스트들을 중심으로 다시 로마에서 회합이 이루어졌다.<sup>22)</sup>

말뫼대회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sup>23)</sup> 첫째, 파시즘의 복권을 위해 여론의 지지를 얻고, 둘째, 유럽 신파시스트 집단 모두에게 적용될 공동의 강령을 만들며, 셋째, 신파시스트 집단을 위한 유럽 차원의 활동들을 결정하고, 넷째, 다가올 유럽의회 선거에 대비해 공동 후보를 정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말뫼대회는 ‘유럽사회운동’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정치조직 결성을 결의했다.<sup>24)</sup> 이 조직은 ‘연구위원회(Commission d'Étude)’가 중심이 되는 일종의 집단지도체제 방식을 택했다. 바르데슈는 자신과 엔달, 프리스터, 그리고 이탈리아의 에르네스토 마시(Ernesto

21) Macklin, *Very Deeply Dyed in Black*, p. 107.

22) Algazy, *La tentation néo-fasciste en France*, p. 294.

23) *Ibid.*, p. 295.

24) ‘유럽사회운동’이라는 명칭 자체에도 ‘이탈리아사회운동’의 영향력이 반영되어 있다.

Massi, 1909-1997)가 제1기 연구위원이 되었고 앙달이 “소집과 연락”을 담당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25)</sup> 이는 유럽사회운동이 응집력 있는 정치조직이 되기에는 참가자들 사이의 이견과 경쟁, 혹은 갈등이 많았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유럽사회운동은 신파시스트 유럽공동체의 기본 구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sup>26)</sup> 첫째, 정치적으로 독자적이며 군사적으로 강력한 유럽을 구성하는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분열에 빠진 유럽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에 종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이 완전한 독립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정치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진영에도, 공산주의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유럽에 적합한 정치체제” 즉 파시스트 정권의 수립은 유럽의 독립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 또한 정치체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럽의 재무장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므로 거부해야 한다. 그 대신 “무장한 민족적 독일”과 “민족적 반공 스페인”이 함께하는 “무장한 민족적 유럽(Europe nationale et armée)”을 만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유럽사회운동이 꿈꾸는 유럽은 “유럽의 지휘를 받는 유럽의 군대로, 유럽 민족들 사이의 연합체제로, 통합된 유럽이다.” 둘째, 사회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적 유럽”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에 유용한 모든 노동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노동에서 나오지 않는 수입은 철폐되어야 한다.” “사회적 유럽만이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말피대회가 폐회 직전 채택한 10개 조항의 선언문은 파시스트 유럽공동체 수립을 위해 유럽사회운동이 완수해야 할 핵심 과업을 담고

- 25) Bardèche, *Souvenirs*, p. 242. 4인 ‘연구위원회’는 곧 6인 ‘연구위원회’로 확대되었다. ‘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Macklin, *Very Deeply Dyed in Black*, pp. 178-179, n.84. 한편 지도체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알가지(Algazy)는 앙달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두 명의 부회장 가운데 한 사람이 바르데슈라 주장한다. Algazy, *La tentation néo-fasciste en France*, p. 296.
- 26) ‘유럽사회운동’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Qu’est-ce que le M.S.E?” *Défense de l’Occident*, No. 13(1954), pp. 37-38; Algazy, *La tentation néo-fasciste en France*, p. 294에서 재인용.

있다. 1. 공산주의에 맞서 서양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2. 유럽제국을 창설하고 3. 가격과 임금은 유럽제국 차원에서 통제되도록 하며, 4. 유럽제국의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는, 모든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군대를 창설하고, 5. 식민지 주민들은 적절한 문화적, 경제적 수준에 도달한 뒤 유럽제국 구성원이 될 권리를 부여할 것이며, 6. 주민투표에 의한 중앙정부의 지도부를 선출하고, 7. 조합주의적 국가의 기관들이 사회적, 경제적 삶을 조정하도록 하며 8, 교육의 목표는 강한 남성과 여성을 양성하는 데 있고 9, 지난 전쟁에서 양 진영으로 갈라졌던 이상주의자들 사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요컨대 10. 이러한 유럽혁명은 인간, 사회, 국가의 정신적 갱생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sup>27)</sup>

말피대회는 파시스트 유럽공동체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움으로써 전간기 파시즘을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보편적 파시즘(universal fascism)을 내걸었고, 독일의 히틀러는 유럽의 새로운 질서 수립을 명분으로 일국적 파시즘의 틀을 넘어서고자 했던 일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예컨대 드리외 라 로셀처럼 “유럽연합국” 수립을 주장했던 파시스트 지식인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sup>28)</sup> 그러나 주요 유럽 국가들의 대표가 결집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형태로나마 파시스트 “유럽혁명”으로 수립될 “유럽제국”의 밑그림에 합의를 이룬 것은 말피대회가 처음이다. 말피대회가 “유럽공동체 건설이 여전히 프로젝트에 머물고 있던 시절, 최초로 조직된 유럽 운동”이었다는 바르데슈의 평가는 따라서 그다지 과장된 것이 아니다.<sup>29)</sup>

27) *Droit et liberté* (2 juin 1952), Roger Griffin (ed.), *Fascism*(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342에서 재인용. 강조는 필자.

28) Roger Griffin, “Europe for the Europeans: Fascist Myths of the European New Order 1922-1992,” Feldman (ed.), *The Fascist Century*, pp. 136-155. 이탈리아의 “보편적 파시즘”에 대해서는 Michael Ledeen, *Universal Fascism: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Fascist International, 1928-1936*(New York: Howard Fertig, 1972).

29) Bardèche, *Souvenirs*, p. 241.

그러나 ‘유럽사회운동’의 생명력은 약했다. 균열의 조짐은 1951년 말 퇴대회 직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르테슈와 르네 비네(René Binet, 1913-1957)사이의 대립이 그것이다. 스탈린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를 거쳐 무장친위대(Waffen-SS)로 변신했던 비네 역시 말퇴대회에 참석했지만 곧 바르테슈와 대립했다.<sup>30)</sup> 유럽사회운동의 프랑스 지부 지휘권과 인종주의 문제를 놓고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던 것이다.<sup>31)</sup> 결국 1951년 9월 비네는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유럽신질서(Nouvelle Ordre Européen)’라는 명칭의 또 다른 신파시스트 인터내셔널을 조직해 유럽사회운동과 결별을 공식화했다. 유럽신질서는 유럽사회운동과 유사하게 “독립 유럽과 사회 정의”를 내걸었지만 “인종의 수호”를 가장 중시했다는 점에서 달랐다. 이 조직은 식민 지배가 식민지인들과 유럽의 백인들 사이의 혼종을 부추기기 때문에 식민주의에 반대할 정도로 인종주의에 집착했다.<sup>32)</sup>

정치운동으로서는 단명했지만 ‘유럽사회운동’은 이념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다. 1952년 유럽사회운동 프랑스 지부의 기관지격으로 바르테슈가 창간한 월간 『서양의 수호』는 1982년 폐간될 때까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수정주의 파시즘의 이론적 실험실 역할을 함으로써 전후 유럽 파시즘의 “메타정치화”를 선도했기 때문이다.<sup>33)</sup> 이는 『서양의 수호』에 실린 글들의 성격과 기고자들의 면면을 통해

30) François Duprat, *Les mouvements d'extrême droite en France de 1944 à nos jours* (Paris: Albatros, 1972), pp. 51-52; Jean-Yves Camus, Nicolas Lebourg, *Les droites extrêmes en Europe*(Paris: Seuil, 2015), pp. 90-91; Macklin, *Very Deeply Dyed in Black*, pp. 178-179. 바르테슈는 “위대한 아리안족 백인의 패권이 모든 유럽 민족들의 단결을 확보하는 데 알맞은 집합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말퇴대회 참석자들은 없었다”고 회고하면서 비네와의 갈등이 인종주의와 관련되어 있었음을 강조한다. Bardèche, *Souvenirs*, p. 243.

31) Algazy, *La tentation néo-fasciste en France*, p. 302; Jean-Yves Camus & Nicolas Lebourg, *Les droites extrêmes en Europe*, pp. 88-90.

32) Algazy, *La tentation néo-fasciste en France*, p. 302

33) 『서양의 수호』는 이탈리아사회운동의 자금 지원을 받아 창간되었다. Camus & Lebourg, *Les droites extrêmes en Europe*, pp. 89, 91-92.

여실히 드러난다. 예컨대 “로베르 브라지야크를 기억하며”(1955년), “푸자디즘”(1956년), “드리외 라 로셀”(1958년), “미지의 파시즘”(1969), “세계의 파시즘”(1970년), “반(反)볼셰비키 십자군”(1973) 등 『서양의 수호』 특집호들의 주제가 그러하고, 프랑스의 도미니크 베네(Dominique Venner, 1935-2013), 프랑수아 뒤프라(François Duprat, 1940-1978), 알랭 드 브누아(Alain de Benoist, 1943-), 벨기에의 레온 드그렐(Léon Degrelle, 1906-1994), 스웨덴의 영달, 루마니아의 호리아 시마(Horia Sima, 1907-1993), 이탈리아의 에블라, 조르지오 알미란테(Giorgio Almirante, 1914-1988) 등 유럽의 기라성 같은 신파시스트 기고자들의 면면이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서양의 수호』는 폴 라시니에(Paul Rassinier, 1906-1967), 로베르 포리송(Rober Faurisson, 1929-)과 같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유대인 학살 ‘부정주의자’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

유럽통합을 내건 파시스트 인터내셔널 운동은 말피대회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56년 미국 CIA는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134명에 달하는 “국제주의적 파시스트”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들은 국가별로는 독일 31명, 프랑스 30명, 스웨덴 17명, 벨기에 11명, 이탈리아 10명, 덴마크 9명, 오스트리아 6명, 스페인 5명, 노르웨이 5명, 영국 4명, 네덜란드 4명, 스위스 4명, 핀란드 1명이었다.<sup>34)</sup>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 유럽주의적 성향의 신파시스트들이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반면 바르데슈와 『서양의 수호』의 예에서 보듯이 정치투쟁의 수면 아래에서 전개된 이념적 차원의 실험에서 전후 파시즘은 착실한 성장을 이루었다. 전후 파시즘 연구에서 사상사적, 문화사적 접근이 긴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III. 파시스트 유럽의 신화

말피대회가 끝난 지 6개월 후 출간되었지만 『콜럼버스의 달걀』은

34) CIA, “The Fascist International”(January 9, 1956), pp. 5-16, Camus & Lebourg, *Les droites extrêmes en Europe*, p. 79에서 재인용.

바르테슈의 파시스트 유럽주의의 기본 구상이 그보다 훨씬 앞서 만들어져 있었음을 입증한다.<sup>35)</sup> 미국 상원의원 태프트(Robert Alphonso Taft, 1889-1953)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한 이 책에 대해 바르테슈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자평한다. “1951년 11월 판매가 시작된 이 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진 정치적 저작 가운데 하나이다...내가 보기에 이 소책자는 유럽이 존속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필수적인 조건들을 밝혔다.”<sup>36)</sup> 바르테슈는 장 모네(Jean Monnet, 1888-1979) 식의 “상업적” 유럽통합과는 달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워싱턴도 아니고 모스크바도 아닌” 제3의 세력으로서의 유럽, 독립 유럽, “성채(citadelle)”로서의 유럽공동체의 이상을 제시했다고 자부한다.<sup>37)</sup>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바르테슈가 말하는 성채 혹은 요새 유럽은 사실상 파시스트 유럽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주저 『파시즘이란 무엇인가』보다 10년 앞서 바르테슈는 유로파시즘이야말로 전후 파시즘의 재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광풍, 폐허로 변한 유럽, 이탈리아와 독일 파시즘의 패망, 미국과 소련의 ‘점령’과 이 두 강대국이 주도하는 냉전, 여기서 어떻게 유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콜럼버스의 달걀』의 저자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많은 유럽인들이 느꼈던 절망,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으려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유럽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바르테슈는 대다수의 유럽인들과는 다른 길을 택했다. 바

35) 『콜럼버스의 달걀』에는 바르테슈가 1950년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행했던 연설문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Bardèche, *L'œuf de Christophe Colomb*, pp. 129-159. 특히 p. 129의 각주 (1) 참조.

36) Bardèche, *Souvenirs*, p. 245. 바르테슈는 회고록에서 미국 대통령의 손자이자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트루먼(Harry Truman, 1884-1972)과 경쟁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 책을 헌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4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로버트 태프트로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1857-1930)의 손자가 아니라 장남이다.

37) *Ibid.*, pp. 245-246.

르데슈가 볼 때 이 모든 위기의 근원에는 반(反)파시즘이라는 명분으로 유럽을 점령한 소련 공산주의가 있다.

바르데슈의 반(反)파시즘 담론은 그가 어떻게 최근의 역사를 전유하면서 파시즘의 오명을 씻어내고 또 그것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러시아혁명 이래 공산주의는 지속적으로 유럽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다. 그러나 소련 공산주의의 쇠퇴, 바르데슈의 표현을 빌리면 “아시아의 쇠퇴”는 지정학적으로 봉쇄가 가능했다. 왜냐하면 “독일,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이루어진 포물선 모양의 외부 성벽”, 달리 말하면 “반공산주의 벨트”가 있었기 때문이다.<sup>38)</sup> 이 뿐만이 아니다. “긴 역사를 가진 서양 국가들의 천재성이 공산주의의 신화에 맞서 똑같이 강력한 신화로 맞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 공산주의, 혹은 “아시아의 침략에 맞서 쫓겨난 것은 서양의 백인종이며 그 천재성, 혈통, 그리고 과거에서 모든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는 전쟁의 함성을 찾은 것도 서양의 백인종이다.” 또한 이러한 천재성을 구현한 것은 유럽 각국의 “민족세력들”이며 이들이야말로 반공의 보루였다는 것이다.<sup>39)</sup> 바르데슈는 『콜럼버스의 달걀』 전편에서 “민족세력”을 반공의 주체로, 유럽 공동체 건설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민족세력”이란 표현은 사실상 “파시스트 세력”의 완곡어법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유럽을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구했고 또 구할 수 있는 세력은 다름 아닌 파시즘이라는 주장이다.

바르데슈가 볼 때 반파시즘은 소련의 공산주의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돌파하기 위해 수립한 고도의 전략이다. 반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지정학적인 방벽과 파시즘(“민족세력”)의 저항에 직면한 크레믈린은 파시즘을 “괴물”, 혹은 “전제정”이라 낙인찍고 인류 전체의 자유를 위협하는 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다.<sup>40)</sup> 이렇게 파시즘은 인류의 보편적인

38) Bardèche, *L'œuf de Christophe Colomb*, p. 17.

39) *Ibid.*, pp. 14-16.

40) *Ibid.*, pp. 20-21.

적이 되었고 공산주의는 다른 모든 세력과 더불어 반파시스트 공동전선을 수립할 수 있었다. 반파시즘의 이름 앞에서 유럽의 반공주의가 맥없이 허물어졌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더 이상 강령을 말하지 않고 더 이상 공산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위협받고 있는 것은 인류 전체”라 주장하며 스스로를 자유의 수호자로 내세울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바르테슈에게 반파시즘은 “공산주의의 탁월한 근대적 정치무기이다.”<sup>41)</sup> 그것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유럽 내부 깊숙한 곳에서 반공주의의 아성을 공격한다.<sup>42)</sup>

바르테슈의 반파시즘(anti-fascism) 담론이 흥미로운 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역할 때문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유럽이 처한 위기의 책임을 파시즘이 아니라 공산주의에게 떠넘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민족세력인 파시즘의 본질이 공산주의 때문에 왜곡되었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그의 반파시즘 담론의 목적은 파시즘의 복권이다. 예컨대 그가 볼 때 비록 나치즘이 일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나치즘은 여전히 “필수적인 이념으로 남아있다. 독일이 유럽의 지도에서 아시아의 제국주의에 대한 필수적인 장벽이듯이 나치즘은 세계의 이념 지도에서 공산주의에 맞선 필수적인 억제력이다.”<sup>43)</sup>

제2차 세계대전이 내전이라는 바르테슈의 해석 역시 같은 담론 전략의 산물이다. 유럽의 “민족세력”, 즉 파시즘과 볼셰비즘 사이의 갈등이 절정에 달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해 바르테슈는 전쟁의 결말을 유럽 파시즘의 패배이자 동시에 유럽 자체의 패배로 연결짓는다.<sup>44)</sup> “1944-1945년의 사건들은 더 이상 자유 국가들의 승리가 아니라 볼셰비즘에 맞선 유럽의 패배”이다. 나아가 그는 파시즘을 유럽 문명 자체와 동일시하면서 파시즘을 격퇴한 연합군, 특히 소련 공산주의 세력이 “문명에 반하는 죄(crime contre la civilisation)”

41) *Ibid.*, pp. 18-20.

42) *Ibid.*, p. 28.

43) *Ibid.*, p. 132.

44) *Ibid.*, p. 118.

를 저질렀다고 비난한다. 바르테슈가 독일의 패배를 현대의 가장 거대한 파국이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독일의 패배로 “유럽은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45년 독일 패배는 오늘날 현대의 가장 거대한 파국처럼 보인다.”<sup>45)</sup> “독일의 생명이 멈추는 곳에는 유럽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동시에 이념적 측면에서 독일의 붕괴는 소련 공산주의를 막고 있던 방파제가 와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바르테슈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강력한 블록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 세대의 임무는 유럽 국가들의 블록을 실현하는 일이다. 그 블록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외국인의 앞잡이들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sup>46)</sup> 그런데 유럽 국가들 사이의 블록 형성 과업은 오로지 유럽의 “민족세력”만이 완수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 사이의 모든 폭넓은 협력의 선제 조건은 민족세력들이 각국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민족세력들이야말로 단호하게 공산주의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산주의의 신화에 맞서 “유럽을 위한 새로운 신화”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테슈의 표현을 빌리면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일은 오로지 민족주의자들만이 해낼 수 있다.”<sup>47)</sup> 앞서 언급했듯이, 바르테슈의 어법에서 “민족세력”이 사실상 파시스트들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가 꿈꾸는 유럽 통합은 먼저 유럽 각국에서 파시스트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민족세력”이 구축할 유럽은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측면에서 완전한 독자성을 확보한 공동체이자 소련, 미국이라는 양대 초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이 될 것이다. 먼저 유럽은 아프

45) *Ibid.*, p. 129.

46) *Ibid.*, p. 135.

47) *Ibid.*, pp. 138-139.

리카의 식민지를 포함하는 “경제적 통일체”가 되어야 한다. 아프리카가 유럽 경제에 필수적인 천연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바르데슈가 꿈꾸는 유럽공동체는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지를 포함하는 이른바 “유라프리카(Eurafrique)”이다.<sup>48)</sup> 식민지 아프리카의 자원과 유럽의 선진 기술이 결합해 자급 경제를 갖추게 될 파시스트 유럽공동체는 먼저 단일 국가 차원에서는 풀 수 없었던 경제 문제들을 쉽게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파시스트 유라프리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무능함을 보였던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한 국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실업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sup>49)</sup>

다음으로 유럽의 정치적 통합은 무엇보다도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와 결합을 기초로 할 때만 실현가능하다.”<sup>50)</sup> 앞서 언급한 바처럼 바르데슈는 곳곳에서 독일, 특히 통일된 독일이 소련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르데슈는 독일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오래된 두려움도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더 심각한 상황 앞에서 사라질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바르데슈는 프랑스와 독일의 결합을 기초로 유럽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특정 국가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가 꿈꾸는 유럽공동체에서 각 소속 국가들은 “권리의 완전한 평등”을 누릴 것이다.<sup>51)</sup>

마지막으로 이념적인 독립이다. 이는 유럽공동체가 “소비에트 십자

48) 바르데슈의 ‘유라프리카’ 구상에 대한 간략한 평가는 Nicolas Lebourg, *Le monde vu de la plus extrême droite: Du fascisme au nationalisme-révolutionnaire* (Perpignan: Presses Universitaires de Perpignan, 2010), pp. 160-161. 식민지를 아우르는 유럽통합은 파시스트들의 창작물이 아니다. 오히려 유럽통합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선구적 인물들이 ‘유라프리카’ 구상을 공유하고 있었고, 바르데슈를 비롯한 파시스트들은 이러한 구상을 수용한 것이다. ‘유라프리카’ 구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Peo Hansen & Stefan Jonsson, *Eurafrica: The Untold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and Colonialism*(London: Bloomsbury, 2014).

49) Bardèche, *L'œuf de Christophe Colomb*, p. 141.

50) *Ibid.*, p. 135.

51) *Ibid.*, p. 143.

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히스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바르데슈의 표현을 빌리면 “민주주의적 유럽을 원하는 것은 유럽이 두 진영 가운데 하나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것이자,” 사실상 “미국의 위성국”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sup>52)</sup> 오히려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으로 “절대적으로 독립된” “제3의 세력”이 될 때 유럽은 일종의 두 진영 사이의 완충지대이자 조정자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3)</sup>

이렇게 결성될 유럽공동체 아래에서 바르데슈의 표현에 의하면 “유럽민족주의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다.<sup>54)</sup> 바르데슈는 유럽이 폐허와 종속을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파시즘임을 호소하기 위해 세 가지 신화를 동원한다. 첫째, 유럽 민족들은 유기체와 같은 실체라는 신화, 둘째, 이 유기체가 병균의 침투로 병들고 있지만 병균을 박멸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신화, 셋째, 병균에 대한 확고한 저항력을 확보할 때, 달리 말하면 유기체의 세포들인 민족구성원들을 “새로운 인종”, 파시스트적 인간형으로 만들어 완전한 체질개선을 이룰 때 비로소 유럽 민족의 르네상스가 이루어진다는 신화이다.<sup>55)</sup> 이처럼 바르데슈의 파시스트 유럽주의 담론은 전간기 파시스트들이 주장했던 민족혁명의 신화에 기대면서 동시에 민족혁명에서 유럽혁명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바르데슈가 볼 때 유럽 민족의 특징은 유기체적 실체라는 데 있다. 미국의 민족이 “하나의 법률,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만들어 졌다면” 유럽의 민족은 오랜 세월을 걸쳐 성장해온 “나무와 같다.” 혹은 유럽의 민족은 “폴립(polype)처럼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단일한 존재이다. 유럽의 민족이 가진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

52) *Ibid.*, p. 146.

53) *Ibid.*, pp. 147-148.

54) *Ibid.*, p. 179.

55) *Ibid.*, p. 215.

라 혼(âme)이다. 그 혼은 민족의 생명 그 자체이다. 혼 없이 민족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사라지면 민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혼을 이데올로기로 대체하는 것은 민족을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과 같고 로봇이 인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진 민족은 민족이 아니다.”<sup>56)</sup>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인 유럽 민족은 따라서 혼과 육체가 결합된 생명체와 다름없다. 민족통합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족통합은 민족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민족이 몸과 같다는 인식에서 민족수호와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 나오며 민족혼이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정의와 형제애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들이 도출된다. 당연히 이 둘은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서로 합쳐지고 또 서로를 보강한다. 그러므로 정의를 존중하는 일은 동시에 민족수호에 기여하며 민족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민족 구성원들 사이의 형제애를 보장하는 일이 된다는 주장이다.<sup>57)</sup>

전후 유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바르테슈는 이 위기를 유기체로서의 유럽 민족들의 위기라 해석한다. 즉 외부의 적과 내부의 병균들이 유럽 민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영속적 동맹”에 기초한 일원화된 유럽의 군대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한 바 있다. 바르테슈는 “유럽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민족 군대는 단순한 병사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단일한 방향”을 천명할 수 있는 “영속적 동맹의 표현이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sup>58)</sup>

그러나 바르테슈에 의하면 외부의 적 못지않게 위험한 존재가 바로 내부의 적이다. “유기체를 위협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 혹은 다른 무생물뿐만 아니라 질병과 독이다. 그러므로 민족통합을 위해 국경 너

56) *Ibid.*, pp. 178-179.

57) *Ibid.*, p. 181.

58) *Ibid.*, p. 182.

며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우리 민족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방어가 필수적이다.”<sup>59)</sup> 유럽인들이 힘을 모아 맞서야 할 이러한 이방인들은 “유럽과 유럽의 정신에 동화할 수 없는 사람들, 따라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다.<sup>60)</sup> 외국인에 대한 바르데슈의 극단적인 경계심은 그들을 민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균자”들이자 “어떤 자연적 장애물도 만나지 않은 채 세균 감염이 가속화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자들이다.<sup>61)</sup> 바르데슈가 볼 때 외국인이라는 병균에 가장 치명적인 영역은 유럽인들의 사상이다. 그에 의하면 사상이 최강의 파괴력을 지닌 무기가 된 것은 현대적 현상이다. 바르데슈는 현대 세계에서 사상이 갖는 힘을 이렇게 비유한다. “포착할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한 유기체 전체의 강력한 중독에 비하면 원자폭탄, 세균전조차도 유치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바르데슈가 물질주의, 국제적 자본주의, 의회민주주의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감추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유럽 민족을 병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유럽의 역사와 전통과는 무관한, 이방인이 전파하는 외래적인 사상들이다.

병든 유럽, 폐허로 변한 유럽, 점령당한 유럽을 딛고 일어서서 건강한 민족들로 구성된 새로운 유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족을 병들게 하는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병든 민족에게서 병균을 제거하는 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병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민족 자체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민족의 체질 개선은 그 구성원들을 새로운 인간형으로 만들 때 비로소 완수될 수 있다. 바르데슈가 “새로운 인종”의 출현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유럽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폐허는

59) *Ibid.*, p. 183.

60) *Ibid.*, p. 185.

61) *Ibid.*, p. 189.

마치 카드모스(Cadmus)처럼 우리 땅에 돌을 심을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인종이 솟아날 것이다.”<sup>62)</sup>

“새로운 인종”, 새로운 유럽인, 요컨대 신파시즘적, 유로파시즘적 인간형은 무엇보다도 전사와 같은 존재이다. 바르테슈는 인간 최고의 경지는 시민이 아니라 전사로서의 자질과 덕성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민과 전사를 날카롭게 대비시킨다. 그가 볼 때 전사의 덕성은 무엇보다도 용기와 의지, 충실성, 복종심, 규율,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충성심이다.”<sup>63)</sup> 당연히 바르테슈에게 새로운 유럽인은 남성적이다. “여성들에게나 알맞은 정숙함은” 새로운 인간형에게 본질적인 덕성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사의 덕성은 전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평화 시에도 전쟁 자체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우리 전 서양 국가들에서 우리는 거짓과 증오와 부정의와 착취에 맞서 싸워야 하고” 이 투쟁은 “무기를 든 전쟁만큼이나 영웅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sup>64)</sup> 전사로서의 온갖 덕성을 골고루 갖춘 새로운 인간으로 민족들이 거듭날 때 비로소 유럽은 “난공불락의 성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르테슈는 이러한 새로운 유로파시스트 인간형의 모델이 유럽의 공통된 과거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유럽의 천재성은 그 기억 안에 있다.”<sup>65)</sup> 따라서 새로운 유럽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죽은 자들을 다시 깨워야만 한다.”<sup>66)</sup> 깨워야 할 사람들은 먼저 고대 스파르타인들이다. “여우가 배를 물어뜯고 있었지만 비명 한 마디 없이 참아냈던 고대 스파르타의 소년,” 테르모필레(Thermopyles) 전투에서 페르시아에 용감하게 맞섰던 스파르타의 전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바르테슈는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 유

62) *Ibid.*, p. 215. 바르테슈는 카드모스의 신화에 기대어 새로운 유럽인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다.

63) *Ibid.*, p. 216.

64) *Ibid.*, p. 217.

65) *Ibid.*, p. 214.

66) *Ibid.*, p. 219.

럽인 “모두는 스파르타 출신이다.”<sup>67)</sup> 이들과 함께 “기독교 문명이라고도 불리는 서양의 문명”을 위해 싸웠던 중세의 기사들도 부활해야 한다. 그 시절 서양은 “하나의 혼을 가지고 있었고” 중세 기사들의 칼은 “다른 신들을 믿는 다른 인민들에 맞서 서양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기사들의 미덕은 “서약과 칼의 존중, 명예와 충성심의 숭배”였다.<sup>68)</sup>

바르데슈가 이처럼 고대 스파르타인과 중세 기사를 이상화한 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다. 그것은 유럽인들이 하나가 되어 유럽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했던 과거의 이미지를 전유, 활용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유럽인들의 마음과 정서를 장악하기 위한 담론 전략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유럽인들이 스파르타의 전사, 중세의 기사 같은 존재를 떠올리며 정서적, 감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새로운 인간, 유로파시즘적 인간형으로 거듭날 때 이들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유럽을 탄생시키는 일, 즉 신파시스트 유럽혁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드는 일이었다.

#### IV. 맺음말

바르데슈의 파시스트 유럽주의는 유럽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청사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화 만들기이다. 그것은 이성보다는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여 파시즘의 이름으로 폐허로 변한 유럽을 다시 부활시킬 투쟁에 사람들을 동원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바르데슈의 파시스트 유럽주의는 조르쥬 소렐(Georges Sorel) 식의 신화에 가깝다. 여기서 신화란 어떠한 합리주의적 논리에 의해서도 분쇄되지 않는 이미지의 총체 같은 것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투쟁에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힘이다. 한 역사가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바르데슈의 신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잘 포착하고 있다. 바르데슈가

67) *Ibid.*, pp. 215-216.

68) *Ibid.*, pp. 219-220.

꿈꾸는 파시스트 유럽은 “감정적 유럽(sentimental Europe)”이다.<sup>69)</sup> 그러므로 바르테슈의 파시스트 유럽주의가 체계성을 결여하고 있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볍게 넘겨버려서는 안된다. 환상, 바로 거기에 바르테슈의 담론 전략의 핵심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절친한 친구 브라지야크처럼 바르테슈에게도 파시즘은 일종의 시(詩)와 같다.

바르테슈가 그려낸 새로운 파시스트 유럽의 신화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유럽을 찬양한다. 그에게 유럽 민족들은 유기체적 실체이며 안과 밖의 병균들의 침투와 공격으로 사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유럽이라는 유기체가 몸과 마음 모두 심각한 질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믿음인 것이다. 바르테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파괴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파괴된 것은 우리 도시들만이 아니다. 가치와 믿음 전체가 파괴되었다. 그 폐허는 가시적이지 않다. 그러나 가시적인 폐허보다 훨씬 더 소름끼치는 것이다.”<sup>70)</sup> 그러므로 유럽이 다시 소생하는 길은 병균의 침투에 맞설 튼튼한 장벽을 쌓는 일이다. 바르테슈의 표현을 빌리면, “갑옷 입은 유럽”,<sup>71)</sup> “난공불락의 성채”같은 유럽이 그것이다.<sup>72)</sup>

바르테슈의 신파시스트 이데올로기에는 또한 폭력성이 원천적으로 내재해 있다. 민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상상하는 한 폭력성은 늘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유기체이므로 민족이 병들 수 있다는 인식은 민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병균들을 적시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일단 병균들이 확인되고 나면 그 병균을 박멸하는 행위는 민족을 되살리기 위한 치유 과정이 된다. 말하자면 폭력은 늘 치유와 갱생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특정 인간 집단에 대한 무자비하면서도 무관심한 폭력이 유기체적 민족주의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이유이

69) Mammoné, *Transnational Neofascism*, p. 78.

70) Bardèche, *L'œuf de Christophe Colomb*, p. 139.

71) *Ibid.*, p. 165.

72) *Ibid.*, p. 219.

다. 유대인과 집시를 비롯한 특정 인간 집단에 대한 나치의 가공할 폭력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병균의 이름은 유대인, 집시, 공산주의자에서, 이주민, 무슬림 등으로 언제든 얼마든 확장,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바르데슈는 전후 파시즘과 극우파들의 이념적 실험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루이대왕고등학교, 파리고등사범을 졸업하고 소르본느와 릴대학의 교수를 지낸 화려한 경력이 입증하듯, 바르데슈는 비범한 지적 능력을 활용해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그가 창간한 『서양의 수호』는 파시스트들과 극우파들을 위한 최고의 이념적 실험실 역할을 했다. 예컨대 베네, 뒤프라, 드 브누아와 같은 젊은 신파시스트들은 바르데슈와 『서양의 수호』가 만든 이념적 장의 영향력을 비켜갈 수 없었다. ‘민족전선(Front National)’ 창설을 이끌었던 뒤프라가 이후 민족전선의 상표가 될 반(反)이민 전략 구상을 처음 밝힌 곳도 『서양의 수호』였다.<sup>73)</sup> 그러므로 오늘날 유럽 도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극우파들에게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이름을 선불리 선사하기보다는 이들을 좀 더 깊은 전망에서 접근하는 역사적 관점과 연구가 절실하다. 1998년 바르데슈가 세상을 떠나자 당시 민족전선의 당수였던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 1928-)은 “유럽 갱생의 예언자이자... 위대한 문인이며 전위적인 역사가”라는 헌사를 그의 영전에 바쳤다.<sup>74)</sup>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투고일자: 2017. 7. 23, 심사일자: 2017. 8. 7, 게재확정일자: 2017. 8. 14〉

▶ **주제어** : 모리스 바르데슈(Maurice Bardèche), 파시즘(fascism), 신파시즘(neofascism), 파시스트 유럽주의(fascist europeanism), 메타-정치(meta-politics)

73) Lebourg, *Le monde vu de la plus extrême droite*, p. 160.

74) “Il y a 15 ans, le 30 juillet 1998: Maurice Bardèche nous quittait”, *Synthèse nationale*(<http://synthesenationale.hautetfort.com/archive/2013/07/29/il-y-a-15-ans-le-30-juliet-1998-maurice-bardeche-nous-quitt.html>)에서 재인용.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 Bardèche, Maurice. *Lettre à François Mauriac*(Paris: La Pensée libre, 1947).  
 \_\_\_\_\_. *Nuremberg ou la terre promise*(Paris: Les Sept Couleurs, 1948).  
 \_\_\_\_\_. *L'œuf de Christophe Colomb: Lettre à un sénateur d'Amérique*(Paris: Les Sept Couleurs, 1951).  
 \_\_\_\_\_. *Qu'est-ce que le fascisme?*(Paris: Les Sept Couleurs, 1961).  
 \_\_\_\_\_. *Souvenirs*(Paris: Bouchet/Chastel, 1993).  
 Griffin, Roger (ed.) *Fascism*(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2. 연구문헌

- Algazy, Joseph. *La tentation néo-fasciste en France 1944-1965*(Paris: Fayard, 1984).  
 \_\_\_\_\_. *L'extrême-droite en France 1965 à 1984*(Paris: L'Harmattan, 1989).  
 Atkins, Stephen E. *Holocaust Denial as an International Movement*(London: Praeger, 2009).  
 Barnes, Ian R. "Antisemitic Europe and the 'Third Way': The Ideas of Maurice Bardèche", *Patterns of Prejudice*, Vol. 34, No. 2(2000), pp. 57-73.  
 Bergeron, Francis. *Bardèche*(Grez-sur-Loing: Pardès, 2012).  
 Camus, Jean-Yves, Lebourg, Nicolas. *Les droites extrêmes en Europe*(Paris: Seuil, 2015).  
 de Benoist, Alain. *Mémoire vive: entretiens avec François Bousquet*(Paris: Fallois, 2012).  
 Desbuissons, Ghislaine. "Maurice Bardèche: un précurseur du «révisionnisme»", *Relations internationales*, no. 65(1991), pp. 23-37.  
 \_\_\_\_\_. "Maurice Bardèche, écrivain et théoricien fasciste?",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Vol. 37(1990), pp. 148-159.  
 Duprat, François. *Les mouvements d'extrême droite en France de 1944 à nos jours* (Paris: Albatros, 1972).  
 Feldman, Matthew (ed.) *The Fascist Century. Essays by Roger Griffin*(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8).  
 Hansen, Peo, Jonsson, Stefan. *Eurafrica. The Untold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 and Colonialism* (London: Bloomsbury, 2014).
- Igounet, Valérie. *Histoire du négationnisme en France*(Paris: Seuil, 2000).
- Kaplan, Alice. *Reproductions of Banality: Fascism, Literature, and French Intellectual Life*(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 \_\_\_\_\_. *The Collaborator: The Trial & Execution of Robert Brasillach*(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Lebourg, Nicolas. *Le monde vu de la plus extrême droite: Du fascisme au nationalisme-révolutionnaire*(Perpignan: Presses Universitaires de Perpignan, 2010).
- Ledeen, Michael. *Universal Fascism: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Fascist International, 1928-1936*(New York: Howard Fertig, 1972).
- Macklin, Graham. *Very Deeply Dyed in Black: Sir Oswald Mosley and the Resurrection of British Fascism after 1945*(London: I. B. Tauris, 2007).
- Mammone, Andrea. *Transnational Neofascism in France and Italy*(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Shields, J. G. *The Extreme Right in France*(London: Routledge, 2007).

## 〈Résumé〉

**Le néofascisme de Maurice Bardèche et un européisme fasciste**

Yong-Woo KIM

Les deux traits les plus remarquables du néofascisme d'après-guerre étaient son européanisation et sa métapolitisation. L'itinéraire politique et intellectuel de Maurice Bardèche a précisément suivi ces voies classiques de la révision post-guerre du fascisme. Même s'il est encore largement négligé par les études néo-fascistes, Bardèche était l'un des idéologues les plus influents du néofascisme en France et aussi en Europe. En effet, Bardèche était l'un des premiers théoriciens de l'européanisme fasciste. Dans cet essai, j'ai l'intention de découvrir et d'élucider les moyens par lesquels Bardèche pourrait élaborer sa vision ou son mythe fasciste européenne, en mettant l'accent sur son livre de 1951, *L'œuf de Christophe Colomb*, le premier important exposé d'après-guerre de l'européanisme fasciste en français.

## 〈Abstract〉

**Maurice Bardèche's Neofascism and Fascist Europeanism**

Yong-Woo KIM

The two most conspicuous features of the post-war neofascism were Europeanization and metapoliticization. Maurice Bardèche's political and intellectual itinerary precisely followed these classic routes of post-war revision of fascism. Even if he is still largely neglected by neofascist studies, Bardèche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ideologues of neofascism in France and also in Europe. Indeed, Bardèche was one of the first theoreticians of fascist Europeanism. In this essay I intend to uncover and elucidate the ways through which Bardeche could elaborate his European fascist vision or myth, by focusing on his 1951 book, *The Egg of Christopher Columbus*, the first major post-war exposition of fascist Europeanism in French.